

최현의 산 이야기 <17> 두륜산 3



아홉머리의 용이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九龍爭珠) 구룡쟁주의 명당 두륜산 아래 배운사의 용화당(龍華堂)이 보인다.

구룡쟁주 명당은 부처님 자리 아니라 대산님 자리

<九龍爭珠>

두륜산은 풍수지리적으로 지세(地勢)가 아홉 머리의 용이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구룡쟁주(九龍爭珠)의 명당(明堂)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두륜산 주능선 상의 아홉 봉우리에서 아홉 개의 산줄기가 대문사의 입주문을 향해 뻗어 내려와(依龍) 머리를 맞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룡쟁주의 명당은 누가 모셔져 있을까? 대문사의 금당(金堂)인 대웅보전(大雄寶殿)은 우백호(右白虎)인 고계봉 아래 합수머리 계곡 건너 울퉁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합수머리의 중앙에는 천불전(千佛殿)과 표충사(表忠祠) 그리고 대광명전(大光明殿)이 들어 서 있다.

두륜산의 우백호는 가련봉을 일구고 고계봉을 거쳐 장춘계곡(長春溪谷)으로 찾아들고, 좌청룡(左靑龍)은 연화봉을 일구고 혈망봉을 거쳐 장춘계곡으로 찾아들고, 인산인항로봉을 향해 달리는 두륜봉의 산줄기가 머리를 들이대는 입수처(入首處)는 일지암(一止庵)에서 잠시 쉬고 있다가 내려앉아 합수머리 가랑이 사이에 명당을 부러 놓았는데, 그곳이 바로 표충사, 즉 사명대사의 사당(祠堂)이다.

대문사가 그야말로 남쪽 땅 끝 조그마한 절이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서산대사의 의발(依鉢)과 '대선사 교지(大禪師 教旨)'가 전해지는 사찰이라는 위세 덕분에 1664년 대규모의 중창불사가 이루어져 장건 이후 처음으로 규모를 갖춘 절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런데 대웅보전 주변의 전각들이 이 때 세워졌다. 5년 뒤에 표충사가 세워졌는데, 금당인 대웅보전을 우백호 한쪽 귀퉁이에 세우고 구룡쟁주의 명당 터는 비워두었다는

것은 가장 좋은 자리는 '대산님 자리(表忠祠)'로 머리 잡아놓고, 다음으로 '부처님 자리(大雄寶殿)'를 잡았는 것이 아닌지 놀라운 상상을 해본다.

표충사를 건립할 때는 정조(正祖) 임금이 친필 편액까지 내렸을 정도이니 서산대사가 남긴 의발과 대문사 교지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할 만하다.

구룡쟁주의 명당에 묘는 잘 썼는데, 그렇다면 천년동안 제사를 받는(千秋血食) 현인(賢人)은 과연 누구인가?

그는 대문사가 배출한 13대종사의 마지막 대종사(大宗師)인 초의선사(草衣禪師)가 아닐까?

13대종사 모두 불가(佛家)에서는 천추만대에 우러름을 받겠지만 다성(茶聖)으로 일컫는 초의선사는 문도(門徒) 뿐만 아니라 문외한(門外漢)까지도 두루 기림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초의선사가 다도(茶道)를 꽃피우며 주석하였던 일지암은 두륜봉에서 표충사로 내려오는 입수의 중앙에서 돌출한 오대산 적멸보궁(寂滅寶宮)과 같은 위치이다.

초의선사는 16세에 운흥사(雲興寺)로 출가하여 선객(禪客)이 되어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등 명산을 두루 편력하다가 두륜산에 정착하여 일지암에 주석하게 된다. 그는 불교뿐 아니라 유교, 도교에도 조예가 깊어 많은 유학자들과 친교를 맺었다. 그중에서도 가까이 지낸 유학자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다산(茶山) 정약옹(丁若鏞), 해거도인(海居道人) 홍현주(洪顯周), 자하(紫峯) 신유(申緯) 등을 꼽을 수 있다.

초의선사는 차를 지극히 사랑하여 다도를 알고 싶어 하

는 홍현주를 위해 <동다송(東茶頌)>을 짓기도 했고, 역학(易學)에 관심이 깊어 스물다섯 살이나 위인 다산에게 <주역(周易)>을 배웠고, 다산의 제자인 정학연(丁學淵), 정학유(丁學淵)와도 각별하게 지냈다.

특히 추사는 초의선사와 동갑으로 남달리 깊은 우정을 나눴다. 추사가 제주도로 귀양 갈 때 대문사에 들러 초의를 만났고, 추사를 만나러 제주도를 다녀오기도 했다. 좋은 차를 구하면 추사에게 보내고 염주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두륜산을 끝내면서 달마산을 짓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호남정맥이 두륜산을 빙어놓고 한반도의 남쪽 끝 땅끝 마을에서 바다로 들기 전에 현결찬 기상으로 솟구쳐 놓은 것이 달마산이다. 달마산은 십여 리에 걸쳐 길게 이어진 기이하고 오묘한 형상을 한 비취산이다. 달마산 북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미황사이다.

서산대사의 의발이 대문사에 전해진 뒤로 많은 수행자들이 대문사로 몰려들었는데, 그와 지근거리에 있는 미황사에도 많은 수행자들이 찾아들어 대문사와 미황사를 오가며 깨달음의 문을 두드렸다. 대문사의 13대종사인 연가(蓮潭), 벽하(碧霞), 설봉(雪峯) 스님 등은 미황사에 자주 머물렀고, 정암(鼎岩), 인암(忍庵), 영허(靈虛) 스님 등은 미황사가 배출한 조선 후기의 고승대위들이다.

도량 터는 아주 대조적인데 대문사는 사방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윽한 반면에 미황사는 앞이 훤히 트여 있어 한없이 넓고 경쾌하다.

■최현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별은 가까이 있다

'봄네'라는 말이 뇌리 속에서 '복' 솟아나는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 '봄에 옮겨 심은 나무가 있어 시들시들한 게, 봄 좀 대워야겠어요. 비가 좀 내려야 할 텐데...'

나는 좋지만 한데 아내에 불과한 농사일이라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아무래도 내가 아내보다는 생활에 신경을 덜 쓰는 것이 분명하다. 작물이야 지들이 알아서 다 잘 자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신경을 덜 쓰는 이유 중 하나다. 거기서 나아가 '먹고사는 것이야 어찌 되든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 또한 가슴 한쪽을 차지하고 있으니 아내가 속 터질 만도 하다. 어찌됐거나 그것이 사실인 걸 또 어찌할까나.

산속에 10년하고도 5년이 넘게 살다보니 백성이 제법 두둑해졌다. 심몇 년 전에 비하면 그렇다. 세상이 어떻게 돼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돈을 벌어서 본주의가 요구하는 인간행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내 나름대로 목숨 불리고 살아갈 자신이 산속 생활을 하면서 몸에 붙었다. 텃밭만 잘 가꾸고 때 맞춰 나오는 나물을 채취만 잘 해도 쌀을 제외한 먹을 것은 모자람이 없다. 먹고 남은 고추를 팔면 쌀값도 쉽게 해결된다. 먹고 살 일이 두렵지 않으니 세상의 눈치를 보며 굴심거림 이유가 없다.

삶은 걸 싫다고 얘기하지도 못하면서 살아왔으나 요즈음은 싫다는 말도 곧잘 한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지는 오래 됐으나 감히 대들 힘이 나지 않았다. 없던 힘이 생겨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힘은 있었으나 더 큰 힘에 억눌려 있었다고 봐야 한다. 꿈틀, 반항의 기운이 솟구쳐 온 했으나 스스로 억눌렀다. 살아온 세월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까지의 학교생활에서, 뒷골목의 강태들에게, 국가의 폭력 앞에서, 군대의 철조망 속에서.

우주 끝의 손길은

지구에 닿아 있고

사람의 손길은

우주 끝에 닿아 있다

우주의 구성구석

그 어느 곳도 생각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아내의 말을 못 들은 척 하기도 어려워 밭으로 밭길을 옮겼다. 푸른 작물들에 내리쬐이는 햇살은 더욱 환하다. 푸르름과 햇살은 잘 어울리는 형제다. 빛의 형태로 다가오는 것은 태양만이 아니다. 밤하늘의 별, 수많은 태양이 지구로 자신의 몸을 날려온다. 지구로 흐르는 은하의 빛줄기를 마시며 생명이 자란다. 이 거대한 우주의 기운을 받아먹으며 사람이 살아간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찌 말 한마디 하지 못할까? 일어나는 힘을 밖으

로 발산하지 못할까? 산수유나무는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울기 지 않은 나무에 비해 일이 자라지 못하고 힘이 없이 축 처져 있었다. 새로 옮겨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기 위해 앓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 옳았다. 이겨낼 수만 있다면 앓는 것도 헛된 것만은 아닐 터이다. 식물도 태어나 공간을 이동해서 살아보는 행운을 얻은 경험만으로도 병을 앓는 대가는 되지 않을까? 나무가 원치 않은 이식이었을까?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앞뒤를 알고 나면 나를 욕하진 않을 것이다. 오가는 길옆에 심겨진 나무였다. 자라나면서 사람의 이동을 방해해 언젠가는 잘려질 운명이었다.

녹색식물들이 햇살을 한 줄이라도 더 받기 위해 키를 키우는데 온힘을 쏟아내는 여류이다. 이 세상이 하나의 덩어리인 것이 분명하다면 굳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일이다. 식물들의 경쟁은 치열하지만 참참하지 않다. 풀을 뜯어먹는 동물도 가만히 보면 햇살을 닮았다.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 동물도 햇살을 닮았다. 푸르름만이 햇살의 등무라고 할 수는 없다. 붉은 피가 솟구치는 동물의 세상도 태양의 얼굴을 비껴갈 수 없다. 저 하늘의 얼굴은 지상의 모든 것과 엇비슷한 모양새다. 우주 끝의 손길은 지구에 닿아 있고 사람의 손길은 우주 끝에 닿아 있다. 우주의 구성구석 그 어느 곳도 생각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유승도 (시인)

수제화 고무신코만행화. Advertisement for handmade shoes with various styles like '특무명', 'K 샌달', '지압·동결창', '조각무명', '지압동결창', '사계절단화', '건강샌들', '망사단화'. Includ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민속죽염. Advertisement for traditional salt-roasted food. Features '22년전통 쪄낸 알곡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and lists products like '가루 자죽염 125g 27,500원' and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Includes a phone number and website.

농협농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Advertisement for agricultural equipment financing. Shows images of refrigerators and freezers. Text includes '(주)현대에너지 2010년 최신행' and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